

명저산책

Review



리비오 산소네의 『종족성을 상실한 흑인성: 브라질의 인종 구성하기』: 정체성은 있으나 정치성은 없는 흑인 문화¹⁾

최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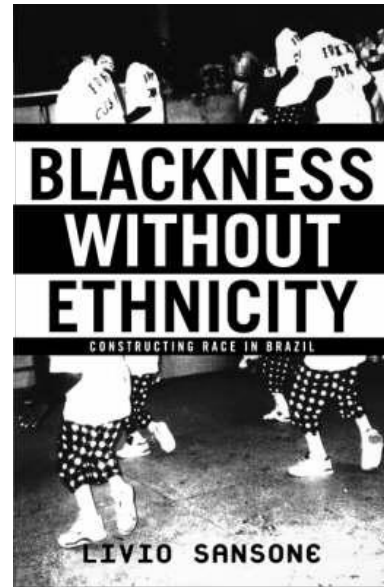
1. 들어가며: 인종, 종족 집단적 정체성이 반드시 인종 차별에 대항하는 힘이 될 수는 없다?

종족 집단 없는 흑인됨(Blackness without ethnicity)은 이 책에서 제공하는 논의의 핵심을 잘 표현한 구절이다. 브라질에서는 흑인 상징 및 정체성이 종족, 인종적 집단적 결집력 없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 흑인을 연구한 학자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과연 브라질의 흑인 문화는 문화적 정체성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결집력을 가지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현재 브라질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책은 이태리 출신 인류학자가 브라질에 십여 년에 걸쳐 체류하면서 축적한 자료를 기반으로 쓴 민족지이다. 모든 장에서 일관성 있게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 주제는 바로 ‘브라질에서 흑인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1) 원저의 제목은 Blackness without Ethnicity: Constructing Race in Brazil, 으로 2003년 Palgrave Macmillan(New York)에서 출판되었다.

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된다. 저자는 브라질에서 '흑인됨(blackness)'의 의미를 서구처럼 단일한 집단성을 가지는 '인종'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으로 규정한다. 저자는 일상생활에서 인종 구분의 양상, 아프리카 문화의 특질이 이용되고 상품화되는 현상, 브라질 바이아 지방의 흑인 문화에 전지구화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밖에도 리우 데자네이루와 바이아의 펑크 음악 및 춤과 같은 대중문화의 비교, 그리고 더 나아가 바이아만이 아니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하위계층 흑인 청년들의 경험을 비교하였다. 본 서평을 통해서 이 책의 핵심적 내용을 두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요약학, 검토해본 후 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 및 강점, 그리고 여타 연구와 연관성을 논의할 것이다.



리비오 산소네, 『종족성을 상실한 흑인성: 브라질의 인종 구성하기』(2003)

2. 인종(race)과 종족성(ethnicity)의 구분, 그리고 브라질의 인종(1,2장)

1장에서는 ‘아프리카-라틴 패러독스?: 모호한 종족 경계, 첨예한 계급의 구분, 그리고 살아있는 흑인 문화’(An Afro-Latin Paradox?: Ambiguous Ethnic Lines, Sharp Class Divisions, and a Vital Black Culture)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민족성으로서는 불명확한 경계지만, 계급으로서는 명확히 구분되는 집단으로서 흑인의 정체성을 주로 다룬다. 그리고 다시 2장 ‘흑인 부모, 흑인 아이들: 변화하는 브라질 사회의 인종 분류’(Negro Parents, black children: Racial Classification in a Changing Brazil)에서 더 자세히 브라질의 인종을 지칭하는 다양한 범주



‘블랙 파워’ 머리 모양을 했다는 이유로 대학 출입을 거부당한 아나 카롤리나 사건에 대하여 항의하는 마라냐우 주의 학생들, 슬로건의 내용은 ‘인종 차별 없는 교육’

및 세대 간 인종을 인식하는 방식의 차이를 기술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브라질의 경우 흑인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용어로 네그루(negro), 프레투(preto), 파르두(pardo), 모레누(moreno), 에스쿠루(escuru) 등이 있으며 이들의 구분은 인종 관계, 그리고 역사적 맥락,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학자들은 물론 일반인의 예상과는 달리 브라질에서 인종 범주가 사회적 구별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흑인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네그루(negro)는 대중문화에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사용된다. 미국의 경우, 피부 색깔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미국에서 흑인이란 백인에 반대되는 범주로서 단일한 인종집단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브라질의 바이아와 같이 다양한 흑인 정체성을 가진 곳에서는 흑인이 굳이 백인과 반대되는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으며, 하나의 인종으로 단결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는 브라질에는 인종차별이 없다는 의미인가? 브라질에 흑인, 원주민 및 이주민(특히 유럽 출신이 아닌 이주민)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인종차별이 존재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사회에서는 메스티사젬(mestiçagem: 혼종)의 영향으로 인하여 다양한 인종 집단이 존재해왔다. 저자에 의하면, 브라질의 경우 흑인이 백인에 비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는 흑인 중 특히 하층 계급이 많기 때문이지, 단지 '흑인이기 때문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브라질에서는 인종 개념이 사회적 부당함,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저자가 중점적으로 현지 연구를 수행한 바이아 지역에서는 인종 구분이 영역(areas)에 따라서 권력 관계가 달라진다고 한다. 저자는 영역을 '부드러운 곳'과 '딱딱한 곳'으로 구분하는데, 가령 이웃 간의 관계를 맺는 곳은 부드러운 곳인 반면, 직장은 인종 차별이 가장 극명하게 표출되는 딱딱한 곳으로 인식된다고 한다. 즉, 이웃과 살고 있는 부드러운 곳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분류가 되지 않는 반면, 직장에서 만나는 흑인과 백인 간에는 위계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종 분류와 위계 관계는 상황과 맥락에 따르는 것이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브라질의 인종 연구에서 미국의 인종 연구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인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주로 인종차별 문제에 천착하며, 인종이 단일한 집단으로서 정치적으로 결집력을 지닌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저자가 바라보는 브라질의 인종 문제는 이와는 다르다. 물론 저자가 브라질의 인종에 대하여 흔히 말하는 인종 민주주의(racial democracy)에 적극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브라질에도 인종차별 및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인종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드러나는 문제점은 한 인종 내의 모든 계층을 뭉뚱그려 단일한 집단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이



상파울루의 라스타파리언

러한 것이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과 같은 정책으로 현실화되었을 때, 자원 배분의 정치에서 인종의 단일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브라질 간의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에서는 소수우대정책이 사회적으로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시행되는 데 반해, 브라질의 경우 미국의 쿼터 시스템과 유사한 정책 시행에서 백인이 흑인에 대하여 적대감을 크게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3. 인종, 전지구화, 초국가주의, 그리고 계급문화로서 흑인 문화(3,4,5장)

3장 ‘오늘날 바이아 지역의 로컬과 글로벌’(The Local and the Global in Today’s Afro-Bahia), 4장 ‘바이아와 리우의 ‘글로벌’ 펑크 문화: 흑인 문화의 전지구화에 대한 로컬의 해석’(Glocal Funk in Bahia and in Rio: Local Interpretations of Black Globalization)에서는 글로벌화된 흑인 문화를 다룬다. 저자는 브라질의 흑인 문화는 단순히 이주민

문화로서 아프리카의 전통의 부활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형성되어온 흑인 대중문화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한다. 가령, 흔히 펑크라고 부르는 음악, 춤 장르는 이제 글로벌한 상품이 되었다. 소비문화로서 흑인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최근 전지구화와 더불어 등장한 ‘새로운 흑인’과 결코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새로운 흑인이라는 개념에는 흑인 인구 중 특히 젊은 세대가 흑인됨이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를 지워버리고 새롭게 재정의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흑인 정체성은 결코 모든 흑인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흑인됨’의 여러 가지 표현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이들의 특징이라면 젊은 세대라는 것 외에도 빈민층이며, 국제적이고, 개방적이라는 점이다. 단지 흑인만이 아니라 백인, 여타 인종에게 소비문화로서 개방된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흑인 대중문화로서 라스타파리언(Rastafarian) 및 펑크와 같은 음악, 특유의 헤어스타일과 패션 등을 표현하고 소비한다. 이러한 대중문화는 전 세계로 급속히 전파되어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한 초국가주의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자원이 되었다.

브라질의 살바도르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흑인 문화를 비교한 5장, ‘두 도시의 흑인: 살바도르와 암스테르담의 흑인 청소년에 대한 비교 연구’(Being Black in Two Cities: Comparing Lower-Class Black Youth in Salvador and Amsterdam)에서는 계급으로서 흑인 집단을 기술하고 있다. 두 도시 사례에서 본 흑인은 소비문화로서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전형적으로 흑인적인 생존전략”(p.159)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두 도시의 흑인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물론 전통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국제화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저자는 이를 보편적 흑인 문화로 보기보다는 하층 계급 문화로 간주한다.

그런데 이 노동 계급 혹은 하층 계급으로서 형성하는 하위문화가 저항의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 것일까? 이러한 연구 질문은 일찍이 영국의 노동계급을 연구했던 윌리스(Willis, 1977), 미국 흑인 청소년을 연구한



2006년 독일 월드컵때 맞붙은 브라질과 네덜란드팀이 경기 전 국제축구협회(FIFA)의 인종차별주의 거부 캠페인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습

오그부(Ogbu, 1978), 그리고 미국 히스패닉의 청소년 문화를 연구한 윌리엄스(Williams, 1989) 등이 심도 깊게 다루었던 것이다. 저자는 자신이 연구한 흑인 청년의 노동계급 문화가 반드시 저항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저항보다는 기성세대, 백인 중산층의 가치와는 다른 대안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보는 편이 적합할 것이다. 이 대안적 가치는 그들이 어차피 진입할 수 없는 노동시장에 대한 거부, 그리고 과시적 소비라는 형태로 표출된다.

이들 두 도시에 거주하는 흑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저자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브라질과 네덜란드 간의 경제 수준 차이, 노동 시장 차이가 흑인 삶의 차이를 결정한다. 예컨대, 암스테르담의 노동시장은 살바도르의 노동시장에 비하여 더 유연하며, 네덜란드의 사회복지 시스템도 브라질보다 잘 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므로 네덜란드의 노동시장에서는 흑인이 파트타임이라도 일자리를 구

할 수 있으며, 실업 상태에서도 정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반면, 브라질 흑인은 노동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네덜란드의 흑인들에게는 사회보장제도가 지불하는 임금과 직장 임금의 비교 결과가 중요할 것이고, 브라질의 흑인에게는 한번 구한 직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차이는 오히려 유사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것은 바로 부모 세대의 사회적 지위가 청년 세대에 계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두 도시의 청년이 공통적으로 불안과 불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면, 두 도시의 흑인이 이러한 불안한 노동 시장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때문에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아예 직업을 구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에 대해서도 그리 적극적으로 접근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직업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공포 때문에 일찍 포기하고 마는 두 도시의 흑인은 정작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자에 의하면 적어도 브라질의 도시빈민 흑인은 '내가 흑인이라서'라는 식으로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인종 문제로 돌리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그들이 경험하는 차별, 배제 등과 같은 불평등을 인종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둔 저항으로 승화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약하고 배제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반드시 인종 차별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비판적 시각, 강점, 그리고 여타 연구와의 관련성

저자 산소네는 이태리 시실리 출신이며, 네덜란드에서 인류학을 공부하였다. 박사논문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크레올 청소년의 하위문화,



리비오 산소네

정체성을 다루었다. 산소네가 브라질을 처음 접하게 되고 브라질의 인종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때는 1996년 리우데자네이루의 칸디두 멘테스 대학의 아프리카아시아 연구 센터에서 부센터장으로 일하게 된 1996년부터이다. 리우데자네이루의 흑인 문화연구에서 출발한 산소네는 브라질과 네덜란드의 흑인 문화로 연구 영역을 넓혀갔고, 나아가 영국과 수리남의 흑인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흑인 이산(diaspora) 현상을 비교 연구를 할 수 있었다. 현재는 브라질의 바이아 대학의 인류학자이며, 아이디어 프로젝트 공장(Factory of Ideas Project)이라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 산소네는 관심사인 인종, 전지구화, 다문화주의 등의 주제와 관련한 강연, 세미나를 개최하고, 박사과정생을 교육시키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브라질의 학계에 공헌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브라질 체류와 박사논문부터 시작된 관심에서 알 수 있듯이, 흑인 이산 현상을 십여년에 걸쳐 지역 별 다양한 양상은 물론 각 지역의 변화 과정도 목격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십여년 동안 살았던 브라

질의 경험과 함께 살바도르는 물론 암스테르담의 흑인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현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민족지이다. 전반적으로 민족지적 자료를 엄밀하게 분석했다기보다는 자신의 경험 및 성찰이 많이 포함된 글이라고 보는 편이 좋다.

이 책이 제공하는 풍부하고 살아있는 사례, 그리고 저자의 통찰력이 돋보이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민족지 기술 방식은 객관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할 수 있겠다. 저자가 즐겨 쓰는 사실의 기술 방식이 ‘(제보자가) 느꼈다’와 같은 주관적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그 큰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인종 민주주의를 옹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인종차별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산소네는 구미 사회와 구별되는 브라질의 흑인 문화를 기술하고자 했으며, 무엇보다도 인종의 계급적 성격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지나치게 종족성의 부재를 강조한 듯하다. 저자는 출신 및 소속감이 종족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성분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고정된 출신과 소속감 등이 종족성을 공통된 정치적 목표를 지향하는 집단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산소네가 사용하는 종족성은 일반적인 개념과 조금 상이하다. 이미 많은 학자는 종족성을 집단 구성원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재해석 과정을 거치고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Fischer 1986, Hall 1996). 산소네는 흑인됨의 가변성을 주장하고자, 종족성을 인종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다소 정태적인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 아닐까?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독자는 아마 계급과 인종 간의 관계가 명확히 분석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어떤 사회과학자일지라도 완벽하게 해명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각 사회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정치와 정책에 적용되는 계급 및 인종 개념에 대하여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독자가 이 두 범주 간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해주길 바라지만

않는다면, 이 책은 브라질의 인종에 대한 완벽한 민족지적 기술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몇몇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인종 관계의 특수성에 주목하고, 인종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시도하는 사회과학자에게 많은 영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자가 전통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인종에 대한 논쟁을 초월하고자 했다는 점을 높이 살 수 있다. 전지구화 현상과 이주 현상 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고정된 영토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던 인구가 어떻게 집단 정체성을 가지고, 공통점을 찾는가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맞춘다. 이민자의 정체성은 고정된 실체라기보다는 역사적 특수성을 가지며, 변화에 열려있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은 일찍이 인류학자 바스(Barth, 1969)와 같이 민족 정체성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한 학자들에 의해서 논의된 바 있다. 다만 전지구화라는 가변적 상황이 이민자들의 정체성 새로운 양상을 결과한다는 점에 저자와 같은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를 연구한 것만 주목하자면, 구미의 경우 흑인 특유의 음악 및 언어 사용 등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인류학에서도 흑인 대중문화의 전용 등에 대한 연구가 행해져왔다(가령 영국의 Rampton 2005, 미국의 Bucholtz 2009). 저자가 지난 십여 년간 연구를 통해 축적해왔던 흑인 대중문화, 브라질의 인종 현상에 대한 통찰력이 이와 같은 연구에도 많은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청년 세대가 노동 시장에서 사회적 약자로 자리 잡은 것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가는 현상이다. 이들은 자신의 노동 시장 내 위치 때문에 자원 분배의 불평등과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의 정치에서도 보듯이, 불만을 가지는 젊은 세대 인구가 모두 정치적 세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의 재발견, 흑인 문화의 발전과 같이 젊은 세대가 형성하는 ‘강한 문화’가 과연 브라질에 국한될 것인가, 그리고 전지구화와 함께 타사회의 인종 집단에서도 청년들이 단지 소비자로 머물 것인가와 같

은 질문은 인종, 세대, 사회계층화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던져야 하며, 향후 비교 연구를 통하여 깊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Barth, Fredrik. 1969. "Introduction" in *Handbook of Ethnic Groups and Boudaries: The Social Organization of Culture Difference*, ed. Fredrick Barth,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pp. 9-38.
- Bucholtz, Mary 2009 "Introduction: Youth Language at the Intersection: From Migration to Globalization," *Pragmatics* 19(1): 1-16.
- Fischer, Michael M.J. 1986. "Ethnicity and the Post-Modern Arts of Memory" in *Writing Culture: The Poetics and Politics of Ethnography*, eds. J. Clifford and G.E. Marcus, Berkel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94-233.
- Hall, Stuart. 1996. "The Question of Cultural Identity." in *Handbook of Modernity: An Introduction to Modern Societies*, eds. S. Hall, D. Held, D. Hubert, and K. Thompson. Oxford: Blackwell Publishers, pp. 595-643.
- Ogbu, John 1978. *Minority Education and Caste*. New York: Academic Press.
- Rampton, Ben. 2005. *Crossing: Language and Ethnicity among Adolescents*. Manchester, UK: St. Jerome Publisher.
- Williams, T. 1989. *The Cocaine Kids. The Inside Story of a Teenage Drug Ring*. Reading, Mass: Addison-Wesley.
- Willis, Paul 1977. *Learning to Labour: Why Working-Class Kids Get Working-Class Jobs*. London: Saxon House.

최진숙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기초과정부 교수